

진지한 발표에 감명 항공산업발전 비전 제시 창립기념정책세미나 대성황

우리협회 창립 2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항공기산업의 진흥정책방향”을 주제로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9월 8일 상오 10시부터 섬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무사히 끝났다.

동 세미나에는 도합 8명의 각 방면 전문가들이 각기 소주제별로 발표했고 280여명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경청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다.

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를 관계당국에 보내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며 항공기산업 진흥에 반영될 예정이다.(주제발표 논문 요약 별첨 참조)

논문집, 통계집 발간 정책, 정보자료로 호평받아

우리협회는 또 창립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연구논문 전문을 게재한 약 300여면의 논문집을 별도 간행하여 각계에 배포했다.

이와 아울러 항공우주산업통계집 제1집도 간행하여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이 원하는 정보자료와 기본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배포했다.

통계집은 제1부에 일반경제통계, 제2부에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수급, 생산, 수출입, 종업원, 항공기 보유현황 등을 싣고 제3부에 국외 항공우주산업 통계를 게재한 최신의 자료로 처음 간행되는 자료이다.

협회는 앞으로 이 통계집을 더욱

확충하여 매년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협회 사무실 이전

여의도 증권감독원빌딩으로

우리협회는 9월 14일 현재의 대치동 소재 사무실이 협소하여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근처에 신축한 증권감독원빌딩 16층으로 15일 이전하여 16일부터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2일 정오에 제3차 정책위원회를 전경련회관 19층 클럽에서 열고 사무실 임차 및 이전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항공등 7개사에서 10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새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증권감독원빌딩 16층
우 : 150-010

전화 : 761-1101~6
FAX : 761-1175

제안서 작성 발송

한·미 서브 그룹회의 앞두고

지난 93년 4월 한미통상장관 회의에서 구성키로 합의된 한미간 산업협력 Sub group 회의를 오는 11월에 개최토록 미국측에 제안하게 되어 동 회의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내용등을 간추려 제안서를 작성, 미국측에 발송했다. 동회담은 미국측의 회신을 받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것이며 우리협회는 한미간 항공우주부분의 보다 긴밀한 협조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광범

위한 기술이전등과 상호 협력등이 의제로 될 전망이다.

유럽우주기구대표 방한 예정

우리업계와 협의차

유럽 우주기구(ESA)회원사 약 15개 업체 대표가 오는 9월 30일경 방한하여 우리업계 대표와 만나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협회에서는 이 회합을 위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집한 바, 삼성항공등 6개사가 의견을 보내와 이를 정리하여 논의할 방침이다.

주관기관심의회 의 참석

다목적 실용위성 관련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제작을 위한 주관기관 심의회의가 8월 3~4 양일간 항공우주 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갑 기획관리이사가 참석하여 우리 업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협의했다.

실용위성 추진위 참석

파기처주관 부분체 개발등 협의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추진위원회가 파기처 상황실에서 지난 8월 18일 하오 3시에 열려 우리협회에서는 박병구 상근부회장이 동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부분체 개발 주관기관 선정 문제와 해외 공동개발기관 평가등 구성 및 평가 방법등을 협의했다.

분과심의위, 우주협의를 개최

다목적 실용위성 관련

해외 공동개발 기관 선정 회의도

앞의 회의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17일 하오 3시 협회 회의실에서 다목적 실용위성 분과심의 회의를 열고 국내부분체 개발주관기관 평가내용을 심의했다.

또 8월 29일부터 5일간 항공우주 연구소에서 다목적 실용위성 해외 공동개발기관 선정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갑이사가 동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제10차 우주협의회가 8월 31일 하오 2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열려 대한항공 이견형이사등 11개 업체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에 공동참여함에 따라 각 회원별 참여에 따른 구체적 문제가 협의되었다.

수출진흥회의 개최

활성화 방안등 논의

지난 8월 22일 하오 3시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8인, 상공부 당국자 및 협회측 각 1인등이 모여 항공우주부문 수출진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우주부문의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여러가

지 의견을 협의하였다.

◇오고가는 손님들◇

△8월 22일 하오 6시 Woodward 미보잉사 부사장이 내방하여 상근부회장과 만나 당면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9월 5일 하오 3시, 일본 가와사끼중공업 항공우주사업본부 BK-117 사업 실무자인 오사도 마사노리씨외 1인이 현대기술개발(주) 관계자와 내방 상근부회장과 만나 헬리콥터사업 협력의 조속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과의 유대를 위하여 다음 분야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야 :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기술, 경제등의 논설
유용한 흥미기사, 체험담, 의견등 200자원고지 30장 이내
- ◎현장체험 : 감상 수필 200자원고지 20장 이내
- ◎접수마감 : 매월 말일 도착분을 다음달에 게재
- ◎보 낼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증권감독원빌딩 16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편집실